승·속 경계 넘나든 무애의 '禪畵'

중광 작고 20주기 특별전
'예술의 원점 · 중광과 다섯 광화사(狂畵師)'
예술의전당 서울서예박물관 4월 16일~6월 2일

갤러리미 소장 1979~1980년초 작품 56점 전시
다섯 광화사 '狂氣'로 관찰한 '예술의 원점' 주제
엇갈린 평가 '중광'의 삶 · 예술세계 재조명 기회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걸레스님' 으로 불리며 독보적 화풍으로 한국선화의 지평을 넓혔던 중광(1935~2002)의 작고 20주기를 추모하는 특별전이 열린다. 4월 16일부터 6월 2일까지 예술의전당 서울서예박물관 3층에서 열리는 2022 중광 작고 20주기 특별전 '예술의 원점 · 중광과 다섯 狂畵師' 이다.

생전 중광과 교류가 깊었던 김태정, 이존수, 조부수, 한농, 육심영 작가의 작품이 함께 전시되는 이번 전시는 갤러리미(관장 이란영)가 주최하는 전시로 '동자' 등 갤러리미가 소장한 중광의 1979~1980년초 구작 56점을 선보인다.

선(禪)을 코드로 성과 속, 무법과 유법, 동양과 서양을 넘다든 중광의 삶과 예술세계를 다시 한 번 들여다볼 수 있는 이번 전시는 김태정, 이존수, 조부수, 한농, 육심영 다섯 광화사가 비추는 예술의 원점을 '광기(狂氣)' 라는 키워드로 들여다본다.

중광이 원형의 파괴에서 나오는 파경의 예술을 정직이라는 이름의 무애로 실천했다면 육심영은 '고대의 동양적 주제를 동시대 회화로 이행시킴으로써 시간적 문화적 틈을 획기적으로 메워내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이존수는 한국인의 집단무의식에 깔린 원초적 심상을 우주적인 근원체험과 전통문화와의 해후로 그려냈다. 그런가하면 한농은 아무 색도 형태도 없는 무(無) 아닌 무(無)에서 작가의 느낌과 생각이 모아져 유(有) 아닌 유로 서로 연결했다. 조부수의 화필은 우주의 혼돈상태부터 삼라만상의 지구의 모습은 물론 지구 내부의 맨틀까지 적 · 청 · 흑의 색깔로 그려냈고, 김태정은 서예와 그림의 본질까지 소멸시킴으로써 더 높은 차원에서 모호함을 키워드로 한 새로운 비전을 찾아냈다.

중광의 작업은 서화(書畫), 유화(油畫)는 물론 입체의 도자, 액션페인팅, 시문(詩文)과 영화까지 전방위적인 것으로, 예술에 있어 성과 속, 동과 서의 경계를 허물었다고 할 수 있다.

"미술에 현대미술이니 고대미술이니 하는 것이 따로 없다. 우리가 구분하니까 현대미술이니 고대미술이니, 서양화니 동양화니 한다. 고대에 이미 현대미술보다 더 고차원적인 것이 있었다. 지금 사람들이 문자나 글에 얽매여 그렇지, 제일 중요한 것은 정직이고, 그것이 대번에 나타난다. 예술은 기교가 아니라 혼이고 언어이다. 표출해 내는 것이다. 그것은 사상이 정립되어야 나온다. 〈중략〉 원형에서 추상으로, 추상의 마지막에 들어가면 원형으로 다시 복귀하게 된다. 원형을 파괴하면 파격의 예술이 나온다. 이쯤 되면 경지에 이른다. 경지가 바로 도(道)요 진리이다." - 〈나는 똥이올시다〉 중.

이와 같이 중광의 '무애' 는 그의 삶과 예술을 관통하는 큰 줄기라고 할 수 있다. 얽매임이 없는 중광의 이런 모습은 때론 천진난만하게, 때론 파격적으로 보인다.


달마2_chinese ink &color on korean paper_1981_128x69c_60호


용약_chinese ink &color on korean paper_1981_136x69c_60호

하지만 이런 모습은 늘 한결같다. 작품 '동자(童子)' No.17을 보면, 작품의 소재는 갈대와 동자다. 여기서 동자는 보는 사람에 따라 '어머니' 로도 해석된다. 말하자면 '갈대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 달마' 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낸 작품이다.

여기서 중광이 아니면 아무도 할 수 없는 능력은 기존의 달마를 동자와 어머니로 뒤바꾼 '사건' 이라고 할 수 있다. 마르셀 뒤상의 '변기' 가 연상되는 대목으로, 중광의 달마는 전복적인 조형언어의 구사라는 점에서 차별된다고 하겠다. 예닐곱 개의 초간단 필획과 스트록으로 각중에 서화일체로 형상화된다. 하지만 모든 작품의 구도, 얼개, 골격, 짜임새가 모두 다르다. 한마디로 인드라망과 같은 '일즉다 다즉일' 의 미의 질서가 중광의 붓을 통해 삼천대천세계와 같은 화면에 훤하게 드러난다.

랭카스터 교수가 "중광은 대화가 인습적인 대화의 노선을 따르게 용납하지 않는다. 그는 '달마화술' 을 이용하여 우리의 상호교감을 선(禪)의 공안에 용해시킨다. 이러한 상호교감을 통해서 스승은 그의 제자를 제약하는 이성의 메카니즘(기계적)을 내팽개치게 만들려고 노력했다." 고 한 그대로를 조형언어로 치환시켜낸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예닐곱 번의 필획과 스트록이 전부라는 사실이다. 그야말로 전광석화와 같이 단숨에, 일필휘지로 심상, 즉 이미지를 화면에 현현시키는 것이다. 이 지점의 필획에서 그림 이전에 펄떡이는 중광의 호흡 그 자체를 볼 수 있는 것이다.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광기, 즉 원기, 에너지의 근원을 시추하여 적나라하게 시각화해내는 것이다.

여기서 중광의 선(禪)은 기(氣)이다. 그것도 전광석화와 같은 일기(一氣)이다. 더 피부에 와 닿도록 말하면 한 마디로 두 마음이 아닌 하나의 마음으로서 정직(正直)이다.

정규 미술교육을 받지 않은 중광은 화단의 이단아이자 파계승으로서 그의 화업은 생존 당시 극과 극의 평가로 엇갈렸다. 지금까지도 중광의 예술적 성취에 대한 평가는 중광 개인 차원에 머물러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양한 작품 장르나 주제 간의 유기적인 관계 속의 이해보다 개별적이고 부분적인 평가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성(性)이나 선(禪) 등 그의 작품 속 주제들은 터부와 본성 그리고 확장성 등에서 늘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이런 문제들로 중광 예술의 사회적 평가는 다양해진다고 하겠다.

중광은 1960년 26세 때 양산 통도사에서 출가했으나 계율에 얽매이지 않는 기행으로 인해 1979년 환속하게 된다. 하지만 그의 화업은 승 · 속의 경계와 상관없는 것이었다. 독보적인 화풍으로 국내외적으로 높은 관심과 평가를 받았다. 1977년 영국 왕립 아시아학회에 참석해 '나는 걸레' 라는 자작시를 낭송한 것을 계기로 '걸레스님' 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1979년 중광을 주인공으로 한 랭카스터 교수(미국 버클리대)의 저서 〈광승〉이 발표되면서 '한국의 피카소' 로 불리기도 했다. 1998년부터는 설악산 백담사로 들어가 달마도에 몰두했으며, 백담사의 오현 스님으로부터 '바위처럼 벙어리가 되어라' 는 뜻의 법호 '농암(聾庵)' 을 받았다. 2000년 10월 서울 가나아트센터에서 마지막 전시 '중광 달마전 괜히 왔다 간다' 를 열었다. 2002년 3월 9일 타계했으며, 양산 통도사에서 다비했다.

김수용 감독의 '허튼 소리' , 이두용 감독의 '청송으로 가는 길' 등 영화에 출연하기도 했으며, 저서로 〈나는 똥이올시다〉〈허튼 소리〉〈벙어리 절간 이야기〉 등과 시인 천상병, 소설가 이외수와 함께 펴낸 〈도적놈 셋이서〉(1989) 등이 있다.


목조대일여래좌상, 도쿄국립박물관 소장

불교조각으로 만나는 일본불교 면면들

국립중앙박물관, 10월 9일까지
도쿄博 소장 불교조각 공개
밀교 등 日불교 특징 한눈에

불교미술을 통해 일본불교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는 전시회가 진행된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민병찬)은 "4월 5일부터 세계문화관 일본실에서 일본 도쿄국립박물관 소장 불교조각품 5점을 특별 공개한다"고 밝혔다.

일본의 불교미술은 초기에는 한국과 중국의 영향을 받았으나 9세기부터는 일본의 독자적인 양상을 보였다. 이 무렵부터 주문과 의식으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밀교(密敎)와 서쪽의 극락정토(極樂淨土)에서 다시 태어나게 해달라고 비는 정토교(淨土敎) 신앙이 성행했다. 일본 고유의 신앙과 불교가 합해진 신불습합(神佛習合) 또한 한국과 중국에서는 없는 일본의 독특한 불교문화이다.

이번에 소개되는 목조대일여래 등의 불상들은 밀교 · 정토사상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불상들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이번 전시는 일본 불교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밀교, 정토교, 신불습합의 불교조각품으로 구성됐다. 일본 불교 조각의 세계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먼 바다를 건너 우리를 찾아온 부처와 만나, 그 염원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겨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립중앙박물관은 세계문화관 인도 · 동남아시아실의 전시품도 일부 교체했다.

자이나교 신도들의 순례 체험을 위한 그림과 인도의 대표 서사시 〈라마야나〉의 한 장면을 그린 그림 등을 선보인다. 또한, 동남아시아 불교조각 코너를 14~15세기 티베트와 네팔 등 히말라야 지역의 불교조각으로 교체해 다양한 지역의 불교조각을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상설전시관 3층에 위치한 세계문화관은 연중 무료 관람이며, 도쿄국립박물관 소장 일본 불교조각품 특별 공개는 내년 10월 9일까지 계속된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대원불교미술원은 수십년 동안 전국 사찰에
불상을 조성해왔습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915-17
전화 031)532-3722, 533-3722 | H·P 010-7171-2636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

